

AGAIN 기도회 특별메세지 IV.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들다.

1. 출애굽은 육에서 영으로의 존재적 변화이다.

[고린도후서 5:16-17]

16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오늘의 행복과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부터 온다. 애굽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었던 이유는, 세대를 거쳐 반복된 노예 생활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아무리 행복한 조건에 있어도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오늘 그가 느끼는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불안한 상황이어도 미래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불안함 위에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알고 싶어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보를 습득하고 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 된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도 '육신의 잣대'를 사용하여 안다고 기록한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다. 생각과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특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자기 기준'에서 나타난다.

육신은 언제나 '땅'을 본다. '땅'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이다.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 성경에 보니,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16:24] 그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제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아는 훈련된 사람이다 (잘 훈련된 준마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명마의 상태라 말했다. 군중과 제자의 첫 차이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육신은 언제나 불안한 '감각'에 의지한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져야 안정감을 갖는 사람들을 말한다. '도마'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도 만져 보아야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모험'하지 않는다. 삶의 목적이 '안정감'에 있기 때문이다. 절대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 사도행전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을 보라.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는 방식을 보라. 그들이 정보를 듣고 알고 간 적이 있는가? 베드로를 보라.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기까지 베드로의 정보 감각을 통해 이해된 것이 있는가? (유대인 베드로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심) 그런데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갔는가? 단순하다. 자신의 잣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을 보라.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보라. 어떤 확신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작은 순종이 결국 로마의 영광을 보게 한 것이다.

[사도행전 19:21]

이런 일이 있는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출애굽을 했다. 그런데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출애굽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가?

3.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

오늘 말씀은 출애굽 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말한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육신의 잣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라. 무엇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변화된 존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 모든 만물의 근원 자체가 되시는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다른 존재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모세 -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나다.

모세가 그 예이다. 애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육신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다. 그런 모세가 그의 옛 자아(육신)를 너무 잘 아는 바로에게 가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너무 잘 안다. 그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하지 마라. 사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다. 불감증의 상태가 아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이제 아는 것이다.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 정보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모세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 (10가지 재앙)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의 믿음은 성장했고 커졌다. 무엇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성장은 출애굽의 하이라이트 흥해 사건에 있다. 불확실성의 끝이다. 사면초가이다. 그런데 달라진 모세는 땅에 길이 없지만 '하늘 길을 열어 땅의 길을 만나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나다.

[출애굽기 14:13, 16, 21-22]

13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 보기만 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6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21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22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흥해는 '세레'와 같다. 세레는 옛 자아가 죽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인이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지 않는다. 아는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 다른 존재가 된 것이다.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드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 영적인 존재,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명시하자.

5.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보라. 그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단어를 과소평가 하지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알 수 없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아는 존재가 아니라 거하는 존재이다'

나머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진짜 변화된 존재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존재로 다시 변화되어야 한다.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들 것이다'